

【논문】

플라톤 『필레보스』에서의 참된 즐거움과 좋은 삶

이 종 환*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윤리학

【주요어】 플라톤, 필레보스, 참된 즐거움, 행복, 판단

【요약문】 플라톤의 『필레보스』는 인간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의 어떤 즐거움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거짓된 것은 좋은 삶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즐거움 중 오직 참된 것만이 좋은 삶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 등의 다른 대화편에서는 즐거움의 참 거짓 여부가 즐거움의 대상이 갖는 존재론적 지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제시된다. 이에 반해 『필레보스』에서는 즐거움의 참과 거짓 여부가 즐거움의 대상에 대한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순수한 대상으로부터 비롯하는 즐거움은 판단 과정에서 오류를 겪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기대도 올바른 기대를 하는 경우 참될 수 있고, 괴로움과 섞인 즐거움에서도 즐거움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비롯하는 참된 즐거움의 경험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필레보스』는 판단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이용하여 참된 즐거움의 가능성을 넓힘으로 철학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좋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즐거움이란 무엇인지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도입

플라톤의 『필레보스』편은 소크라테스와 대화 상대자인 프로타르코스가 ‘인간의 삶에서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내용을 다루는 대화편이다. 『법률』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것이 분명한 대화편이고, 『법률』이 완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플라톤이 저술한 대화편 중 완결된 것으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저술된 이 대화편에서¹⁾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이라고 불리는 책들의 주제인 윤리적인 요소들이 중심 논의대상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필레보스』는 초반부의 형이상학적 논의의 난해함 때문에, 그리고 후기 대화편의 하나라는 사실 때문에, 후기 대화편의 주요 주제인 하나와 여럿의 문제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존재론적 해명, 즉 전체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들, 한도와 무한정자, 이들의 결합물과 결합하게 하는 원인에 대한 문제 등에 국내외학자들은 주로 관심을 보여 왔다.²⁾ 그러나 이 대화편은 오래전부터 ‘즐거움에 관하여(*peri hêdonês*)’라는 주제로 알려져 왔으며,³⁾ 실제로 즐거움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 전체 대화편의 2/3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편을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들 중 최소한 여섯 개에서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⁴⁾ 그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1) 플라톤 대화편들 중 『필레보스』편의 집필 시기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 Brandwood, *Chronology of Plato's Dialogues*, pp. 249-50, R. G. Bury, *The Philebus of Plato*, plxxxv.

2) 우리 학계에서는 이기백, 김대오 등에 의해 주로 대화편내의 형이상학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톤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김대오, 「플라톤의 『필레보스』에 나오는 하나와 여럿, 한정과 무한정에 대하여」, 『철학연구』 35호, 1994, 이기백, 「형상에 있어서 하나와 여럿의 문제: 플라톤의 『필레보스』편을 중심으로」, 『철학』 48호, 1996. 「플라톤의 『필레보스』편을 통해 본 변증술의 성격과 쓰임새」, 『서양고전학연구』 11호, 1997. 「개개의 사물은 형상의 전체에 관여하는가, 부분에 관여하는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와 『필레보스』편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43호, 1998. 「『티마이오스』 편과 연관해서 본 『필레보스』 편의 네 부류의 존재와 형상의 관계」, 『철학연구』 47호, 1999 등을 참고.

3)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그리스 철학자 열전』, III. 58.

학자들의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⁵⁾ 그런데 즐거움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정체란 무엇인지를 직접 해명하는 대화편은 『필레보스』이기 때문에, 즐거움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필레보스』라는 대화편 내에서 플라톤이 취하는 즐거움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고자 한다. 특히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이란 즐거움의 대상이 갖는 지위가 아니라 즐거움에 대한 경험자의 판단이라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즐거움은 그 자체로는 좋은 삶 자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즐거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즐거움이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어떤 것이지만,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장한다.

II. 즐거움의 종류

1. 대화의 목적

『필레보스』는 소크라테스가 쾌락주의자인 필레보스와의 대화 이후, 필레보스 대신 프로타르코스를 필레보스를 대신하는 대화 상대자로 참여시

4)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국가』, 『파이돈』, 『티마이오스』, 『필레보스』의 여섯 개 대화편에서 즐거움과 관련된 주제가 직간접적으로 논의된다. 그리고 위작 논란이 있는 『대 히피아스』에서도 즐거움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5) 테런스 어윈(1994)의 경우 플라톤이 초기에는 쾌락주의였다가 중기 이후 형상 이론의 도입과 함께 쾌락주의자의 입장을 버렸다고 주장한다. 고슬링과 테일러(1982)의 경우 즐거움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정확히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즐거움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졌다고 본다. 조지 루더부쉬(2002)는 초기의 플라톤은 일관된 쾌락주의자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줄리아 아나스(1999)는 일관적으로 쾌락주의에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Annas, J. (1999). *Platonic Ethics, Old and New*. Cornell University Press.; Gosling, J. C. B. and Talyor, C. C. W. (1982). *The Greeks on Pleasure*. Oxford. Rudebusch, G. (1999). *Socrates, Pleasure, and Value*, Oxford.; Irwin, T. (1995) *Plato's Ethics*, Oxford 등 참조.

키면서 시작된다. 필레보스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만이 좋은 것이라고 보지만,⁶⁾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더 좋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대화편이 시작하기 이 전에 있었을 두 사람의 대화를 요약한 내용에 따르면 두 대화자는 일종의 동의에 이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11a). 그리고 필레보스는 소크라테스에게 논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12a), 이 대화편의 주요 대화자 두 명, 즉 필레보스의 입장을 이어받은 프로타르코스와 필레보스와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소크라테스는 누구의 입장이 승리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것이 좋은 삶에서 더 우선되는지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려 한다(11c).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대화자는 즐거움과 지혜 각각의 정체를 해명하는 작업에 들어간다.⁷⁾

소크라테스와 프로타르코스는 『국가』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로 남겨두었던⁸⁾ 좋은 삶의 후보로서 지혜만의 삶과 즐거움만의 삶 각각을 검토하지만, 이 두 삶 모두 서로를 배제하고는 충족성, 완전성, 그리고 선택함 직함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으로서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22b). 그래서 즐거움이나 지혜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암시했듯이,⁹⁾ 즐거움과 지혜 모두가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의한다(22d). 이제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에는 지혜와 즐거움 모두가 포함되어야만 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섞여 있는 삶에서 좋음이란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즐거움과 지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의 성격이 밝혀진 후 그 중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잘 섞어야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삶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와 즐거움 각각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 중 어떤 부분을 인간의 삶에 포함시켜야 삶의 주인공인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의 판정을 해야만 한다. 이 지점에 이르러 소크

6) 이런 주장은 플라톤 대화편 들 중 특히 『프로타고라스』 354c에서 또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7)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종환(2014)의 논문을 참고.

8) 『국가』 6권 505b.

9) 대화편이 시작되는 11d-12a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미 슬기로우의 상태나 즐거움의 상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이 둘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시작한다.

라테스와 프로타르코스는 두 대화자는 즐거움과 지혜 각각의 종류들을 나누는 후, 각각의 요소를 통해 즐거움과 지혜가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밝히려 시도한다.¹⁰⁾

2. 인간과 즐거움

먼저 『필레보스』편에서 무엇을 즐거움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소크라테스와 프로타르코스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해명한다. 이들은 인간이란 즐거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가장 반대에서 있는 필레보스의 경우는 즐거움이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11b). 하지만 필레보스의 논의를 이어받은 프로타르코스뿐 아니라 그와 대화하는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좋음은 아니지만, 좋은 삶에서 필수적인 두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에 합의한다(21e-22b).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과 비슷하고, 몸을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을 비롯한 살아있는 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른 존재방식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식과 즐거움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으로서는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이해함과 슬기로움만의 삶(33b)은 신들에게나 적합하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에게는(32e) 가능하지 않기에, 그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의 삶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욕구하면서 살아가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즉, 이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신과 비슷하기에 이해함과 슬기로움의 삶을 살

10)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들에서 발견되는 ‘나눔과 모음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이 즐거움과 지혜 각각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인용한 김대오와 이기백의 연구를 참고.

아야 하지만, 동시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몸에서의 즐거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혼이 겪는 즐거움 뿐 아니라 몸이 겪는 즐거움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며 또한 어떤 것이 좋은 삶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인간의 좋은 삶에 대한 분석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이 대화편의 절반 이상은 즐거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3. 즐거움의 정의

『필레보스』편에서는 “[생명체의 종류인 것(32a-b)]이 와해될 경우에는 괴로움이고 회복될 경우에는 즐거움”이라고 이들을 각각 정의한다. 이런 와해되었던 것으로부터의 회복과 이 과정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은 『국가』 9권의 인식론적인 논의에서¹¹⁾ 소개되었던 것처럼 비어 있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것으로부터의 경험과 거의 동일하다(35a). 즐거움은 일차적으로 몸과 관련되는데, 이런 회복과 비움이라는 몸에서 발생하는 운동에 의해 생겨난다. 그리고 몸이 없이 혼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는데, 회복과 비움이라는 사태에 대해 기대함으로 생겨나는, 즉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혼 자체의 예기를 통해서도 즐거움이 생겨날 수 있다(33c).

이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각’, ‘기억’ 그리고 ‘욕구’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먼저 지각이란 혼과 몸이 ‘한 느낌의 상태’(hen pathos)에 있게 되고 공동으로 운동하게 될 때의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몸에는 동요가 있었지만 이를 혼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지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11) 『국가』 9권에서는 즐거움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즉 즐거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존재론적인 접근, 즉 즐거움의 대상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며 그 성격에 따라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문제를 나누어서 다룬다. 그런데 『국가』 9권의 맥락에서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톤은 인식론적이든 존재론적이든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에서 만족하고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586e-587b). 문제는 이런 즐거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접근 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논의는 이종환(2015)를 참고.

라고 본다(33e-34a). 다시 말해, 지각이라는 현상은 몸에서의 운동과 관계가 있지만 이 운동은 몸에서만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혼이 동시에 겪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감각적 지각을 보존하는 것이 기억이고, 상기란 혼이 몸과 함께하지 않고도 혼과 몸이 언젠가 함께 겪었던 것을 되살리는 것이다(34b). 일반적으로 지각, 욕구, 즐거움 등이 철저하게 몸과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몸이 대상과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고 이로 인해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지각이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몸이 어떤 운동을 했으나 이에 대해 혼이 느끼지 못한다면 지각이란 없다. 몸과 혼이 동시에 어떤 것을 겪고 운동해야, 그런 운동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른다(34a). 따라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사태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지각 뿐 아니라 그리고 곧 논의할 욕구 뿐 아니라 즐거움의 경우도 이는 몸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혼에 있어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즐거움의 성격을 고려할 때에, 몸에서의 운동에 더불어 혼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태, 즉 혼의 작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즐거움이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몸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욕구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발생하는지를 밝힌다(34d). 목마름이라는 현상은 채워짐이라는 운동을 설명하기에 좋은 모델이다. 어떤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한, 즉 물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람이 느끼는 목마름은 일종의 욕구이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기를 갈망하는 것이다(34e). 다시 말해 현재 비워져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상태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채울 것의 부재로 비어있음을 경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전에 그 반대의 상태, 즉 채워진 상태를 경험했던 기억이 없다면, 채워짐 자체를 갈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채워짐이라는 과정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기억이고, 이런 혼이 담당하는 기억이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는다(35c-d).

현재 채워지지지는 않았지만 채워짐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프로타르코스가 걱정하듯 두 배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지만, 현재 채워지지지는 않았지만 채워진 상태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 혹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이나 기대를 하는 사람의 경우, 몸과 혼이 각각 괴로움과 즐거움을 따로 경험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섞여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즐거움이란 몸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과도 관련될 뿐 아니라, 실제 혼의 작용이 몸의 채워짐의 방향과 무엇으로 채울지 까지도 결정한다는 점을 보았다.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이 점은 인간 뿐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필연적으로 겪는 다른 동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36b).¹²⁾

4. 거짓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 몸과 혼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인 소크라테스는 바로 어떻게 즐거움이 참되거나 거짓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한다. 그런데 프로타르코스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지적하듯,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어떻게 거짓되거나 참될 수 있는가?(36c) 판단이나 의견은 참되거나 거짓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어떤 방식으로 참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즐거움이란 혼과 몸이 동시에 채워짐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소크라테스는 보였다. 그리고 마치 몸만 어떤 동요를 경험하지만 혼이 느끼지

12)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인간이나 동물 모두 가지고 있는 욕구가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작용과 함께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매우 낮은 차원이겠지만 욕구의 대상을 지각하고 알 수 있는 일종의 지성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들 중에서 지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나, 물고기, 혹은 육지의 네발 동물이나 땅에 기는 동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동물들은 윤회 이전 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혼에 지성적인 부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티마이오스』 91d-92c 참조.

못할 때 지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지각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본 것처럼 (33e), 몸에서 채워짐이 있더라도 혼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즐거움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타르코스나 필레보스가 생각했듯 몸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 움직임 있다는 점에서 즐거움이 참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혼의 작용이 있어야 즐거움이 경험된다. 그리고 그 혼의 작용은 몸에서 발생한 움직임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즐거움이 참되고 거짓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즐거움에 있어서 혼과 관련된 측면, 즉 혼이 내리는 판단이 참인지의 여부에만 철저히 의존한다. 그런데 필레보스도 그러했지만 프로타르코스 또한 즐거움을 몸의 측면에서만 보고 있고, 이미 소크라테스가 즐거움에 몸과 혼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타르코스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소크라테스에게 즐거움을 몸의 차원에서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6c, 38a, 41a).¹³⁾ 바로 이 점 때문에 프로타르코스는 참된 즐거움과 거짓 즐거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III. 참된 즐거움의 가능성

참된 즐거움이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필레보스』의 소크라테스와 프로타르코스는 즐거움의 종류를 세 가지, 즉 거짓 즐거움, 괴로움과 섞인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이 섞이지 않은 즐거움으로 나눈다. 이 즐거움들 중에서 어떤 것이 참된 즐거움인지를 밝힌 후, 그 참된 즐거움만 인간의 좋은 삶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즐거움 중 무엇이 참된 즐거움

13) 필레보스는 ‘살아있는 모든 것’(11a)에 있어서의 좋음이란 즐거움뿐이라고 생각하여 몸에서 만의 즐거움을 고려했고 프로타르코스는 어쨌든 필레보스의 입장을 이어 받아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진행해왔고, 이 지점에서도 계속 자신의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경우 대화편 시작부터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혼의 습성(*hexis*)이나 상태(*diathesis*)’(11d)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좋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몸보다는 혼에 있어서의 즐거움이란 어떤 것인지를 해명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인가? 혹은 이 세 가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필레보스』편이 『국가』편과 갖는 유사점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 9권에서 참주와 같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의 문제가 잠시 논의되는데 여기에서도 즐거움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구분한다. 이런 유사점을 근거로 『국가』 9권의 결론이 『필레보스』편의 즐거움의 정체를 해명하는 논의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¹⁴⁾ 『국가』 9권에서는 형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론적인 틀에 따라 가장 순수한 대상이 가장 참된 대상이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만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런데 참주와 같은 사람은 이런 대상에 대한 앎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이런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을 향유하고, 그런 점에서 올바르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주와 같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주장한다.¹⁵⁾ 그런데 이 『국가』편의 논의만을 따르면,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인간들 중 매우 한정된 소수, 즉 철학자뿐이다.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즐거움만 참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반해 다른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

14) 최근에 이 문제를 다룬 리차드 패리는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의 경우 정도 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참이 아닌 경우 모두 거짓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 『필레보스』에서 참과 거짓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참된 즐거움이 아닌 것은 모두 거짓 즐거움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참된 즐거움의 ‘참’이 보장되는 것은 『국가』편의 두 세계 구분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가시계와 가시계 사이의 중간 단계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참이 가시계의 성격이라면 가시계는 결국 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도 참이라는 성격을 갖는 가시계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참일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참된 즐거움은 철저히 가시계에 속하는 대상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그의 논문(2010)을 참조. 모스(2006)도 이런 존재론적인 구분 때문에 『필레보스』에서 논의되는 즐거움은 철저히 가시계에만 속하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즐거움이라고 경험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열등한 것이기에’보이기만 좋은 ‘(apparent good)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 문제를 다루었던 울프스도르프(2013)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울프스도르프의 논변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필자(2015)가 다른 곳에서 논의한 것을 참고.

15) 『국가』 9권 참조.

니다.¹⁶⁾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국가』편의 이런 결론이 『필레보스』에서도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거짓 즐거움, 혼합된 즐거움, 순수한 즐거움 중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필레보스』의 결론 또한 어떤 괴로움도 주지 않는, 순수하고 참된 대상을 향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만이 참된 즐거움이고 이것이 인간의 좋은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필레보스』 두 대화편이 즐거움의 종류를 참과 거짓이라는 기준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두 대화편에서 논의되는 방식이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다. 『국가』편의 즐거움에 대한 논의는 욕구의 대상이 갖는 실재의 정도에 따라서 즐거움의 종류가 나누어지는, 즉 즐거움의 대상의 성격에 의존하는 즐거움에 대한 존재론적인 분석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필레보스』편에서 거짓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는 즐거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인 인식론적인 분석, 즉 즐거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즐거움의 종류가 결정된다. 무엇보다도 『필레보스』에서는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조화롭게 혼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레보스』편은 ‘철학자’의 좋은 삶이 아니라 ‘인간’의 좋은 삶이 무엇이며 여기에 기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바로 그 이유로 대화편 결론 부분에서 형상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 대한 앎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앎을 결여한 상태는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을 살기에는 이상적이지 않은 조건이라고 소크라테스와 프로타르코스는 판단한다(62b). 따라서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엄밀한 수준의 앎을 가지는 철학자 뿐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앎이나 옳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좋은 삶의 요소로서의 즐거움, 즉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지를 밝히는 것이 이 대화편의 목표가 된다.

이렇듯 『국가』와 『필레보스』에서 논의되는 즐거움의 성격은 정확히 동

16) 실제로 『국가』 9권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해석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환(2015)를 참조.

일하지 않다. 대화편 자체의 맥락에 따라 『국가』에서는 즐거움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참된 즐거움의 종류 중 하나만으로도 참주의 삶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레보스』에서는 즐거움의 다양한 종류들을 모두 검토해서 그 중 참된 즐거움을 모두 골라내어 좋은 삶의 요소로 혼합시켜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석처럼 『국가』 9권의 논의를 열쇠로 하여 『필레보스』를 해명해서는 하는 것은 『필레보스』라는 대화편의 독특성, 특히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해명하고자 했던 즐거움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레보스』에서 논의되는 참된 즐거움과 거짓 즐거움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 즐거움의 참과 거짓 여부는 대상의 성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경험하는 혼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후 논의에서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 대상이 갖는 존재론적 지위가 혼이 내리는 판단이 참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하는지에 따라서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참된 판단이 그 때 경험하는 즐거움이 참된 것이 되도록 해준다. 앞에서 보았듯이 즐거움이 몸 뿐 아니라 혼이 동시에 참여해야 제대로 경험되는 것이기에, 혼의 판단은 즐거움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존재론적 지위가 형상보다는 낮은 대상에 대해서도 혼이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나 조건이 마련된다면, 즐거움에 대한 판단은 참될 수 있고 이런 판단에 의존하는 즐거움의 경험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때 참된 즐거움은 철학자들과 같이 특정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인간의 좋은 삶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점을 보이기 위해서 『필레보스』에서 검토되고 발견되는 즐거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 중 어떤 것이 바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참된 것이어서 좋은 삶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자.

IV. 즐거움의 종류

소크라테스는 거짓 즐거움이란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서, 즐거움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지금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 몸이 즐거움의 경험, 즉 운동을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몸이 어떤 종류의 채워짐이라는 운동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류를 범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즐거움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혼의 기대와 판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혼재되어 있어서 즐거움의 양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거짓 즐거움’, 그리고 후자를 ‘혼합된 즐거움’이라고 보면서 이 두 가지 즐거움 모두가 인간의 좋은 삶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즐거움의 종류는 괴로움과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이다. 이 경우 대상이 순수하기에 참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대상에 의한 즐거움은 참된다고 해석된다. 이런 순수한 대상이 갖는 성격 때문에, 『필레보스』의 논의는 『국가』와 연결되어 이 마지막 종류의 즐거움만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논의에 의존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필레보스』의 순수한 즐거움은 『국가』의 순수한 즐거움과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의 성격은 『국가』와 독립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제 앞에 논의한 두 가지 즐거움, 즉 아직 있지 않은 사태로부터 비롯하는 즐거움과, 괴로움과 혼합된 즐거움 중에서도 참된 즐거움이 있을 가능성을 이제 검토할 것이다. 『필레보스』편에서 이 두 가지 판단 오류를 겪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는지 살펴보자.

V. 첫 번째 즐거움: 없는 것(사태)에 대한 즐거움

1.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태에 대한 판단과 이에 의한 즐거움

이미 앞에서 보았듯 즐거움이라는 것이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몸과 혼이 동시에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즐거움에 있어서는 몸과 혼,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즐거움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참과 거짓 여부는 판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6d),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의 문제보다는 혼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가 참과 거짓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더 결정적이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절될 수 있는 판단이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니며, 또는 있게 될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닌”(40c)인 경우 판단함이란 있으면서도, 이것들이 “거절된 판단과 거절되게 판단함을 초래”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한다. 즉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현재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아직 있지 않은 미래의 것을 판단하고 있는 현재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은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이는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이고, 따라서 오류 판단과 더불어 발생하는 즐거움은 거짓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몸에 있어서는 채워지는 운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과 연관된 혼의 판단의 대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라 한다면, 없는 것을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따르는 그 즐거움은 거짓 판단에 따르는 거짓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식으로든 무턱대고 즐거워하는 자(*tó parapan hopósoun kai eiké chaironti*)에게는 언제나 실제로 즐거워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니며, 또한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주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거절된 것임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며, 프로타르코스도 이에 동의한다(40d). ‘무턱대고 즐거워하는 자’는 현재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혼에 있어서의 즐거움

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거도 없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되, 그 즐거움의 대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것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판단이 거짓이기는 하지만, 있지 않은 것들 모두가 다 거짓 판단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미래의 사건은 아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참될 수 없다. 없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이 실제 이후에 일어날 사건과의 합치한다면, 이 현재의 판단은 파생적인 의미에서 참될 수 있다. 미래의 사건들 중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 판단을 한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그 판단은 거짓이지만, ‘실제 있을 수 있는 미래의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이 참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설명했던 ‘예기’와 관련해서,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몸에 있어서의 채워짐 혹은 운동이 발생할 때, 그 즐거움은 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기에 존재론적으로는 거짓인 대상에 대한 판단이 참될 수 있고, 그 경우 미래의 판단과 연결되어 있는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한다.

2. 아직 있지 않은 미래의 사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그에 따른 즐거움

소크라테스는 혼이라는 책에 글을 쓰는 기록자들이나 혼 안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을 비유한다(39c-40a). 사람들은 시각이나 다른 감각적 지각으로 그때 판단되고 진술된 것을 혼속에 기록하거나 그려 넣는데, 참된 판단과 진술들의 그림은 참된 것이지만 거짓된 그것들의 그림은 거짓된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적히거나 그려진 것들이 참된 것으로 주어지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것

이 제공될 것이기에 훌륭한 이들은 참된 즐거움을 즐거워하지만 나쁜 자들은 대체로 거짓된 즐거움들로 즐거워하게 된다(40b-c). 그런데 이 비유에 따르면 즐거움이 참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즐거움이 참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나 기록된 내용과 즐거움이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마음속에 기록된 것이나 그림이 어떻게 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즐거움이 참이거나 거짓인 것은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 좋고 나쁜 여부에 달려 있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한다. 다시 말해 즐거움이 참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려지거나 기록된 내용,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성품과 관련이 있다. 즉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성립된 믿음들이 미래의 일에 대한 나의 기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래의 일에 대해 잘못 계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했지만 기대했던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잘못 계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느끼는 즐거움이 직접적으로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¹⁷⁾

둘째,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은 실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의 예를 고려해보자.¹⁸⁾ 나는 복권

17) 그래서 고슬링(1959)은 즐거움이 이런 방식으로 거짓된다고 말하는 것은 ‘파생적(derivative)’인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특히 그의 책 p. 45을 참조). 고슬링에 따르면 즐거움 그 자체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없지만, 이 즐거움에 대한 판단이 참이나 거짓이고, 그 판단은 즐거움과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 파생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플라톤은 즐거움을 판단과 별개로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몸과 혼이 동시에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즐거움은 항상 참이거나 거짓이어야만 한다. 케니는 미래의 즐거움이 거짓이 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의 예를 고려한다. 나는 화요일 저녁 퇴근길에 로또를 구입한 후 이번 토요일 로또 당첨자 발표 시에 1등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거의 당연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화요일 저녁에 상상을 통해 얻은 즐거움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다. 케니(1960), p. 50 참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즐거움의 참 거짓이 판명되는 경우, 실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즐거움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알 수가 없다. 화요일 저녁부터 로또 당첨자가 발표되는 토요일 저녁 8시 30분까지는 화요일 저녁의 즐거움은 참도 거짓도 아닌 것이 되는데, 이는 앞의 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에 당첨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한다. 이 상상하는 순간에 느끼는 즐거움은 그 순간 자체에는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실제 복권 추첨이 방송되는 날 내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걱정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몰래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 올 것인가? 지금 직장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가족들에게는 알릴 것인가? 혹시나 강도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 신분이 알려지면 나는 위협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걱정이 몰려오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일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즐거운 것일 수 있다.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즐거움은 사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그렇다면 내가 미래에 실제 어떤 즐거움을 경험할지에 대해 올바른 기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선 미래에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사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정확히 기대하고 있을 때에 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미래의 좋은 사건을 어떻게 내가 정확히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믿음이나 신념, 혹은 성품이 올바른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내가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즐겁다고 생각한 것이 틀린 이유는, 내가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래에 대한 참된 판단은 복권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말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성실하게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면서 현재 그렇게 성실하게 돈을 번 상황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다. 이런 올바른 기대는 나의 경험과 믿음을 통해 형성된 성품에

18) 이 예는 하르트(2004)가 제시한 예를 필자가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이다. 그의 논문 p. 128을 참조.

의해 이루어지고, 이런 기대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참된 즐거움을 경험한다. 반대로 앞 단락에서 보았듯, 복권에 당첨되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훌륭한 성품에 의존한다. 따라서 덕을 갖춘 사람은 그런 미래의 상황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 상황을 상상하면서 현재에 즐거움을 경험하지도, 그리고 그런 몸의 움직임을 즐거움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참된 즐거움이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그러나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 안의 올바른 기쁨이나 그림에 비추어서, 즉 신의 사랑을 받아 덕을 갖추므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기대할 때 경험할 수 있다.¹⁹⁾

19)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프레데(198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녀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희망하는데 있어 참되거나 거짓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적하거나 그러진’(40b) 내용은 확실한 참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형제의 동화를 이용한다. 이 동화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한 왕이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지푸라기로 황금실을 만들 수 있다고 허풍을 떠다. 여인은 왕궁으로 가서 지푸라기로 황금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때 요정인 럼펠스틸트스킨이 나타나서 나중에 첫 아이를 낳으면 달라는 조건을 걸면서 여인을 도와준다. 결국 여인은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럼펠스틸트스킨이 다시 나타나 내일까지 자신의 이름을 맞추지 못하면 아이를 달라고 요구한다. 이 요정은 왕비가 절대 자신의 이름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즐거워하지만, 왕비는 우여곡절 끝에 이름을 맞추고 아이를 빼앗기지 않게 된다. 프레데는 여왕이 자신의 이름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라는 럼펠스틸트스킨의 기대는 그의 경험이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입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는 정도의 망상에 가까운 기대와는 달리 로고스 수준의 확실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프레데를 비판하는 하르트(2004)는 미래에 대해 인간은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통한 즐거움을 경험할 때의 판단의 정확성은 증명 가능한 확고한 지식과 같은 수준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럼펠스틸트스킨의 기대 또한 그에게 있어서야 왕비가 자신의 이름을 모를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왕비는 이름을 알아냈기 때문에 틀린 기대였다. 따라서 프레데의 생각처럼 로고스 수준의 확실성은 인간으로서 미래에 대해 판단할 때 어찌하였든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최대한의 경우 개인성 정도만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필자는 하르트의 입장을 보완하여, 단순한 믿음 정도로는 미래의 사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고, 여러 경험과 판단,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한 사람의 성격이 미래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VI. 두 번째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이 혼합된 즐거움

1. 혼합된 즐거움과 이에 대한 판단

이제 소크라테스는 괴로움과 혼합된 즐거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즐거움이 나쁨(*poneria*)이 연결되어서 거짓된 것이 될 수 있을 가능성(45e)을 제시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즐거움들은 이런 혼합된 즐거움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프로타르코스와 엘렌코스를 통해 지혜만 있고 즐거움이나 고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이(*apathés*) 사는 것은 좋은 삶의 조건 중 ‘택함직함’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미 함의를 보았다(21e). 따라서 이 혼합된 즐거움은 혼과 몸을 지닌 인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혼합된 즐거움 중에서 인간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를 잘 선택해야 한다.

두 대화자들은 즐거움이나 괴로움 모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ta apeira*) 더함과 덜함(*to mallon te kain hetton*)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27e-28a에서 논의했었다. 따라서 즐거움과 괴로움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크거나 작은지, 혹은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약한지를 잘 측정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좋은 삶을 위해서는 하나의 즐거움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또한 괴로움을 다른 괴로움과 비교하여 잘 판단하는 이성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필레보스』편의 혼합된 즐거움의 논의는 『국가』편 9권의 인식론적 논의와 굉장히 흡사하게 진행된다.

시각의 경우 어떤 대상에 대해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의 크기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도 이성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 어떤 즐거움들은 괴로움과 같이 비교되어서 매우 크거나 강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괴로움은 더 강렬한 것들과 비교되어서 더 약한 괴로움으로 보일 수 있기에, 참되

고 거짓된 판단들은 즐거움과 괴로움 각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즐거움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는 혼합된 즐거움의 경우 즐거움과 괴로움 각각의 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몇 끼를 굶은 다음 매우 배가 고픈 상황에서 작은 떡 한 조각은 매우 큰 즐거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떡 한 조각은 허기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여전히 배가 고픈 괴로운 상황에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즐거움이 이전의 매우 큰 괴로움과 비교되어서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것은 언제나 이리저리 흐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어서(43a), 즐거움이나 괴로움 중 어떤 것도 생기지 않는 상황은 거의 없다. 현상계에서 계속되는 변화 때문에 혼은 즐거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즐거움이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가장 큰 즐거움은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는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크게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갈증을 식히는 차가운 물 한잔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의 크기는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론 이런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더 많이 비어 있는 사람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습게도 가장 큰 괴로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몸에 있어서의 괴로움 뿐 아니라 혼에 있어서의 괴로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혼의 가장 나쁜 상태, 즉 혼란함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강도가 강한 즐거움일수록 몸이나 혼의 가장 나쁜 상태에서 비롯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의 경우 인간에게 나쁜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필레보스나 프로타르코스과 같은 쾌락주의자에게 가장 큰 적은, 소크라테스처럼 지혜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

움이란 없고 사실 즐거움이란 괴로움에서의 탈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44c). 이들은 즐거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라 홀림(*goeteuma*)라고 주장하면서, 즐거움의 ‘건전한 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엄격하고 가혹한 판단’을 한다. 반면 쾌락주의자는 즐거움의 좋은 점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즐거움을 좋은 삶에 필요한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게다가 대화편 앞부분에서 인간의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면서 즐거움이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보였기 때문에, 프로타르코스와 같은 쾌락주의자는 이렇게 즐거움에 대해 잘못 판단하여 괴로움으로부터 피하는 것만 즐거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논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된 즐거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여 참된 즐거움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르코스는 즐거움이 혼합되는 방식을 논의한다.

2. 혼합된 즐거움의 세 가지 종류와 참된 즐거움의 가능성

즐거움과 괴로움이 혼합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몸에 있어서의 혼합된 즐거움. 2) 몸과 혼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의 즐거움. 3) 혼에서의 혼합이 일어나는 경우의 즐거움. 첫 번째 경우는 가려움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의 피부를 긁을 때에, 피부 속에서는 “후끈거림과 염증이 있지만” 겉 부분에서는 시원하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이미 미래의 기대와 관련한 즐거움에서 논의되었던 것인데, 현재 배가 고프기에 몸에서는 괴로움을 경험하지만, 저녁에 먹을 만찬을 기대하면서 혼은 즐거워하는 상태와 같은 경우이다. 세 번째 경우는 희극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좋은 예로서, 희극 주인공을 시기하는 혼의 괴로운 상태와, 그 희극 주인공이 경험하는 나쁜 일들에 대해 즐거워하는 상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을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신이 충분히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그래서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훌륭한 정도에 대해 잘못 판단하여 실제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경우이다(48c). 혹은 사랑하는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본

아킬레우스가 친구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괴로워하면서도, 이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희망과 즐거움을 갖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²⁰⁾

즐거움과 섞여 있는 괴로움은 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²¹⁾ 바로 그런 점에서 가려운 것을 계속해서 긁고 있는 사람은 진정 즐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²²⁾ 저녁에 먹을 만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만찬의 음식이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분명 옳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기대에 의한 즐거움은 참되다고 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한 앎을 갖지 않고서 자신에 대해 만족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의 경우 그가 경험하는 즐거움은 참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혼합된 즐거움은 인간의 좋은 삶의 요소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²³⁾

20) 『일리아드』 18.107-110.

21) 프레데(1993)은 이런 잘못된 판단의 예를 구약성경에서 찾아 설명한다. 야곱과 쌍둥이지만 형이었던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매우 배가 고프고 나뭇지, 자신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고 팔죽 한 그릇을 얻는다. 굶주림으로부터의 고통이 장자로서의 권리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겪게 만든 것이다. 그녀의 논문 p. 447 참조.

22) 『고르기아스』 494 c-d.

23) 앞에서 보았던 페리나 울프스도르프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주석가, 그리고 최근 두 대 화편 사이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러셀(2007)과 같은 학자들은 이와 같이 해석한다. 이런 입장과 약간 달리 프레데는 『필레보스』에서 논의되는 즐거움 또한 일종의 ‘ 좋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대화편에서 논의되는 즐거움이란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프레데는 이렇게 채워짐을 통해서 개별자들은 완전해 가까워지는데, 그 완전한 상태가 ‘ 좋음’이며 즐거움은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에서만 파생적으로, 그리고 ‘치료적(remedial)’인 측면에서만 좋음이라고 본다. 따라서 특히 한 사람이 완전한 좋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즐거움은 필요가 없고 그런 점에서 즐거움은 잠정적인 측면에서만 좋다고 판단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혼합된 즐거움은 부족한 상태에서 채워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 좋음’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반하여 캐론(2000)은 특히 프레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즐거움이란 신과 같은 존재에게도 꼭 필요한 본질적인 좋음에 속하는 것이라고 논의한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의 입장 모두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다고 본다. 첫째, 프레데의 경우 인간이 완전한 좋음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간이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변화

그러나 혼합된 즐거움이 모두 거짓 즐거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선부른 일이다. 우선 대화편 초반부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즐거움이란 인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두 대화자는 동의를 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좋은 삶에서 즐거움은 꼭 있어야 하는데, 혼합된 즐거움이 인간의 좋은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극단적인 두 세계의 구분 제시하는 대화편인 『파이돈』에서조차도 형상에 대한 앎을 갖지 않는 사람 또한 대중적이고 시민적인 덕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⁴⁾ 따라서 순수한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해, 혼합된 즐거움 중 참되고 좋은 것은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짓 즐거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즐거움에 대한 판단이다.

소크라테스와 프로타르코스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의 혼이 내리는 판단이 즐거움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왔다. 두 대화자는 혼합된 즐거움의 경우도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지만, 혼합된 즐거움이 거짓 즐거움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대화편 내에서 사용되어 온 즐거움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모든 혼합된 즐거움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즐거움이 괴로움과 혼합되어 있더라도 적절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참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혼합된 즐거움 또한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어서 판단의 오류를 겪을 만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 특정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동일한 기준을 가지

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체와 회복은 인간에게서 멈출 수 없다. 그런데 『필레보스』에서 논의하는 ‘ 좋음’은 ‘ 좋음 그 자체’가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좋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다른 많은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좋음 중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캐롤이 이 대화편의 논의가 인간에게만 맞추어져있지 신에 있어서의 좋음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녀는 대화편에서 신들의 경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 채워짐으로서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24) 『파이돈』82a-b.

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기준에 대한 앎을 소유하고 있다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확히 측정을 해서 참된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고, 대화자들은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혼합된 즐거움 중에서도 어떤 것은 참될 수 있다.

그러나 판단의 오류를 겪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류를 겪을 여지가 전혀 없는 즐거움, 즉 괴로움과 섞이지 않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경우의 즐거움은 대상이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없어 항상 참되게 판단을 할 것이고, 이런 참된 판단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참되기에 당연히 좋은 삶에 포함시킬 수 있다.

VII. 세 번째 즐거움: 순수한 즐거움

순수한 즐거움이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괴로움과 섞이지 않은 즐거움이다(50e). 앞에서 보았듯이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이란 괴로움으로부터 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만약 즐거움이 괴로움에서 피하는 것으로만 정의된다면, 즐거움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괴로움과 섞여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즐거움은 괴롭고 결국 나쁜 것이라고 해야 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중간 상태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의 상태, 즉 『국가』편과 『필레보스』편에서 정의 하듯 순수한 대상으로 채워지는 상태로 움직인다면, 비어있지도 채워지지도 않은 중간 상태, 즉 괴롭지는 않은 상태에서 채워지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비롯하는 즐거움은 순수하다. 순수한 즐거움은 혼합된 즐거움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즐거움에 대하여 괴로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거나 강도를 판단해야 할 필요도 없기에 이 즐거움에 대한 모든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즐거움은 참되며 좋은 것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괴로움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의 두 종류를 제

시한다. 첫 번째 부류는 몸과 혼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지만 두 번째 부류는 오직 혼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 즉 몸과 혼이 동시에 경험하는 순수한 즐거움의 예로서 소크라테스는 형태들의 아름다움(51c), 소리(51d), 그리고 향기(냄새, 51e)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을 소개한다. 형태들의 아름다움의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꽃이 저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방식처럼 비교에서 경험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체로 본성상 아름다운 것들로서, 직선, 원, 그리고 이들로 이루어지는 평면과 입체 등등을 말하고, 이들은 무언가 특유한 즐거움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들이다. 향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괴로움과 섞이지 않는 냄새를 맡을 때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지각자의 몸에 있는 감각 기관들, 즉 시각이나 청각, 혹은 후각이 그 자체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지각할 때에 몸과 혼이 동시에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본성상 아름다운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혼, 특히 이성적 부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에 의해 올바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혼과 몸이 같이 경험하는 참된 즐거움은 대상의 본질적인 성격만으로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를 지각하는 인간의 감각 기관은 몸에 속하는 것이므로 괴로움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런 본성적인 참된 대상들을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성상 아름다운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으면서도 각각의 감각 기관이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 몸과 혼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51e에 등장하는 향기(혹은 냄새)를 통한 순수한 즐거움의 예는 『국가』 9권에서 즐거움에 대한 인식론적인 분석에서 이미 등장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필레보스』편의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향기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즐거움은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보다는 덜 신적인(*hetton theion*)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왜 후각을 통한 즐거움이 시각보다 청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보다 낮은 수준의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소크라테스가 『필레보스』편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후각이 다른 감각기관, 특

히 시각과 비교해서 지각에 있어서 날카로움의 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⁵⁾ 몸과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몸의 한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감각 기관 중 어떠한 것들은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도 있다.²⁶⁾ 이처럼 몸과 혼이 함께 작용하여 향기와 관련한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두 대화편 모두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즐거움의 대상의 순수성만으로는 참된 즐거움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몸과 섞이지 않고 혼 스스로 경험하는 두 번째 순수한 즐거움의 부류로 학문의 즐거움이 제시된다. 소크라테스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을 때 그 잃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학문의 경우 획득을 하는 과정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움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괴로움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 9권의 논의에서 배움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가장 참된 것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장 참된 즐거움으로 제시되었다. 『필레보스』편에서는 배움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즉 괴로움과 섞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필레보스』편에서 제시되는 순수한 즐거움은 앞의 두 종류의 즐거움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히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지는 않는다. 즉, 『국가』편의 논의처럼 순수한 즐거움의 대상은 존재론적으로도 일정 이상의 지위를 갖는다. 즐거움의 대상이 다른 것과 혼합되어 있거나 반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 한, 즐거움의 강도와는 관계없이 순수한 즐거움은 경험될 수 있다. 희다는 색깔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경우, 희다는 성질이 가장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혼합되지 않은 상태, 즉 그것 속에는 그 어떤 빛깔의 다른

25)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파이드로스』250d, 『국가』368c, 375a, 『법률』927b, 『향연』210c, 『파이돈』65b, 66d 등을 참조.

26) 『티마이오스』47a-b에서 철학을 하는데 있어 시각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시각은 우리가 수, 시간의 관념, 우주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이로부터 철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 부분도 들어 있지 않을 때에 흰색의 순수성이 있을 수 있으며(53a), 이때의 즐거움이 흰 것들 중에서 가장 참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 되, 가장 많거나 큰 흰 것들은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즉 하얀 것 이면 하얀 것이지, 회색 안에 하얀색의 요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흰색의 순수성은 적은 분량의 흰색보다 못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즐거움들 중에서도 이러한 순수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이 순수한 즐거움이다.

그러나 이런 존재론적인 지위만으로 순수한 즐거움이 참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일관되게 참과 거짓의 여부를 판단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과 혼이 함께 경험하는 형태, 소리, 향기로부터 경험하는 순수한 즐거움의 경우, 『국가』편, 혹은 더 나아가서 몸과 혼의 분리를 강조하는 『파이돈』편의 구도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런 대상에 대한 즐거움이 참된 이유는, 괴로움과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은 이러한 즐거움에 대해 판단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섞인 즐거움은 판단자에게 오류의 가능성을 주지만, 순수한 즐거움의 경우 그럴 일이 없다. 그러므로 순수한 즐거움이 참된 이유는 대상의 순수성 때문에 판단자가 오류를 겪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즐거움은 항상 참된 판단을 내리게 해준다. 따라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순수한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다. 다시 말해 즐거움의 대상이 갖는 존재론적인 순수성 그 자체로 참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성 때문에 인식론적으로 참된 판단이 따르고, 결국 그 때의 즐거움은 참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즐거움이 참된 이유는 앞의 두 즐거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즐거움에 대한 바른 판단 때문이다.

VIII. 결론: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인 참된 즐거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

한 즐거움의 경우는 신의 사랑을 받아 미래의 올바른 대상에 대해 즐거워하는 경우, 그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라고 그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 생길 덕스러운 사건에 대해 미리 즐거워하는 경우이다. 둘째, 혼합된 즐거움의 경우 괴로움과 즐거움이 몸에서든 혼에서든 혹은 몸과 혼에서든 섞여 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적절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면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순수한 즐거움의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어서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즐거움 모두 참된 이유는 즐거움에 대한 판단이 참되기 때문이다. 즐거움이란 몸과 혼이 함께 겪는 것이고 그렇기에 판단의 참과 거짓 여부에 따라 즐거움의 성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가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판단이 올바른지의 여부에 따라 즐거움의 참과 거짓 여부가 정해진다. 그렇기에 순수한 즐거움의 경우만 참된 즐거움이라고 보는 해석은 즐거움의 본성을 바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존재론적으로 순수하고 참된 대상, 즉 형상에 대한 앎을 가질 수 있는 철학자들만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인간들은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 철학자는 살아가는 동안 몸으로부터 영혼의 풀려남과 분리를 수행하기는 하지만,²⁷⁾ 인간으로 사는 동안은 여전히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몸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훈련을 할지는 모르지만 몸을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만약 존재론적으로 순수한 대상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철학자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인간인 한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필레보스』편에서 플라톤은 철학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²⁸⁾ 철학자 등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27) 『파이돈』 67d.

28) 물론 이들은 형상에 대한 앎을 직접 가질 수는 없다. 캐론(2001)은 혼의 이성적인 부분만이 형상을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진정한 좋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는 이성만이 알 수 있으며, 혼의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이 좋아 보이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결국 거짓이고 참된 것을 알 수 없다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적절한 지도를 받아 혼합된 즐거움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교육받거나, 시민으로서의 덕²⁹⁾을 갖추어 올바른 기대를 할 성품을 가진 사람의 경우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³⁰⁾

『필레보스』편의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이 지식보다는 낮은 순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66b-c). 그는 ‘존재(ousia)’를 생성(genesis)’와 구분하여 “각각의 생성은 각각의 어떤 존재를 위해 각기 있게 되는 것, 즉 일체의 생성은 일체의 존재를 위해 있게 된다”(54c)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겨나는 과정으로서의 즐거움은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있게 되는 것으로서, 즐거움은 좋음 그 자체의 하나가 될 수는 없다. 반면에 그러한 생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즐거움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즐거움이 나쁜 것에 바로 속하고 결

본다(p. 120). 레세스(1987)도 비슷하게 오직 이성만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 있기에 좋음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혼의 이성적인 부분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p. 151).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국가』편의 두 세계의 엄밀한 구분과 가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성에게 즐거움의 추구를 의존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즐거움을 허용하는 한계를 지닌다.

- 29) 일반인들이 형상에 대한 앎이 없어도 ‘시민의 덕’(dēmōtikē aretē: 『국가』441c-442d, 『파이돈』82a-b 참조)을 갖추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가능성에 관련한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명할 것이다.
- 30) 러셀(2007)은 『국가』와 『필레보스』 사이의 존재론적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즐거움은 ‘조건적인 좋음(a conditional good)’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즐거움이 덕에 동반할 때만 좋음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의 욕구적인 측면이 이성적인 측면과 함께 작동하는 경우인 ‘동의 모델’(A Agreement Model)에서만 즐거움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욕구적인 측면이 이성적인 측면에 의해서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는 경우, 즉 ‘통제 모델’(A Control Model)인 경우에는 즐거움이 좋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좋아지기 위해 이를 제대로 통제하는 덕은 지혜이고, 가장 궁극적인 지혜는 신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으므로, 『필레보스』의 즐거움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쾌락’이지만(p. 108), 결국 인간이 신과 같이 되어 즐거움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신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는 존재이므로(33b), 인간 또한 가능한 이런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즐거움을 통제하는 것보다)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는 주장한다(pp. 148-9). 그런데 그의 해석은 논의 대상의 ‘인간’이라는 측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필레보스』의 대화자들은 즐거움이 배제된 신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성, 충족성, 선택함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동의했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즐거움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의 해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자세한 논의는 그의 책 7장을 참조.

과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즐거움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즐거움이 올바른 방향으로 채워지고 그 자체로 좋은 존재를 회복시키는데 봉사한다면 그 즐거움은 좋은 것이다. 물론 『국가』편의 즐거움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에서 논의된 것처럼, 즐거움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기에 다른 좋은 것들보다 중요도에 있어서는 떨어진다.³¹⁾ 그럼에도 즐거움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 즐거움은 그 자체로는 형상과 같은 순수한 존재들보다 존재론적으로는 열등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좋은 삶에 꼭 있어야 한다.

투 고 일: 2015. 10. 19
 심사완료일: 2015. 11. 10
 게재확정일: 2015. 11. 10

이종환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31) 그래서 『필레보스』편 마지막 부분(66c)에서 즐거움은 좋은 것들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 ‘좋은 것의 순위’가 갖는 성격에 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 박종현 역, 플라톤의 『국가, 정체』, 서광사.
 _____, 플라톤의 『필레보스』, 서광사.
- 이종환, 「플라톤 『필레보스』편의 극적 구조와 대화편 전체의 통일성」,
 『서양고전학연구』 53호, 2014.
- _____, 「『국가』 9권에서 제시된 즐거움에 대한 두 개의 논증」, 『대동
 철학』 72집. 2015.
- Carone, G. R. (2000). “Hedonism and the Pleasureless Life in Plato’s
Philebus,” *Phronesis*, 45(4), 257-283.
- Carone, G.R. (2001) “Akrasia in the *Republic*: Does Plato Change
 His Mind?”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XX: 107-148.
- Frede, Dorothea. (1985). “Rumpelstiltskin’s Pleasures: True and
 False Pleasures in Plato’s *Philebus*,” *Phronesis* 30(2), 151-180.
- _____, (1993). Disintegration and Restoration. In R. Kraut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lato* (pp. 425-463). New York:
 Cambridge.
- Gosling, J. C. (1959). “False Pleasures: *Philebus* 35c-41b,” *Phronesis*,
 4(1), 44-53.
- Harte, V. (2004). “The *Philebus* on Pleasure: The Good, the Bad
 and the Fals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04,
 113-130.
- Kenny, A. (1960). “False Pleasures in the *Philebus*: A Reply to Mr.
 Gosling,” *Phronesis*, 5(1), 45-52.
- Lesses, G. (1987) “Weakness, Reason, and the Divided Soul in
 Plato’s *Republic*,”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4: 147-161.
- Moss (2006), “Pleasure and Illusion in Plato,”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72 (3): 503 - 535.
- Parry, R. D. (2010). “Truth, Falsity, and Pleasures in *Philebus* and

Republic 9,” in *Plato’s Philebus-Selected Papers from the Eighth Symposium Platonicum* (pp. 221–226). Germany: Academia Verlag.

Russell, D. (2007). *Plato on Pleasure and the Good Life*, Oxford.

Wolfsdorf, D. (2013). *Pleasure in Ancient Greek Philosophy*, Cambridge.

ABSTRACT

True Pleasure and a Good Life in Plato's *Philebus*

Lee, Jong-Hwan*

I argue in this paper that while pure pleasure discussed in Plato's *Philebus* is true, true pleasure is not necessarily pure. The truth of pleasure is determined not by the nature of the object that is being experienced and apprehended, but by the capacity of judgment of the person who experiences pleasure. The pleasure from apprehending the Forms is true, while the mixed pleasure judged correctly is also true. Two other kinds of true pleasure in addition to pure pleasure, therefore, are introduced in the *Philebus*: 1) a pleasure that does not exist yet but is correctly anticipated. 2) a mixed pleasure finely judged. Pleasure in the *Philebus* is not necessarily something transcendent granted only to a few men.

Keywords: *Philebus*, True Pleasure, Pure Pleasure, Pain, Judgement

* The University of Seoul.